



발명의 발상기법

브레인 스토오밍 (2)

브레인 스토오밍에 대한 비판

「브레인 스토오밍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분석하거나 하는 일이 없다. 따라서 피상적이다. 비전문가의 모임이면 자유 분방은 터무니 없는 언행이 되고 만다」고 말하는 심리학자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제출 방법에 따라서 좌우되기도 한다. 문제 자체를 분할하여 대상을 좁힌 곳에서 부터 시작하면 그런 걱정은 없어진다. 예를 들면 「좋은 차량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하는 것과 같은 막연한 문제를 내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좋다」는 것은 무엇인가? 걸보기가

좋은 것인지 성능이 좋은 것인지 경제적으로 좋은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래서는 아이디어도 산만해진다. 또 차량이라고 한 마디로 하지만 차체와 차대도 있고 지붕도 바닥도 있다.

그것을 브레인 스토오밍에 진다고 하면 「차량의 바닥을 가볍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식으로 처음에 분할해 두면 효과가 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이다. 실행하는 사람은 이것을 자기류로 개량하고 또 자기회사의 조직에 맞추어 실행해야 한다.

브레인 스토오밍의 또 하나의 큰 효과는 아이디어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인간성을 개발하는 데에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자의식을 버리고 목적 달성을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것을 결합하는 데에 협력하며, 과장의 의견이다 부장의 의견이다 하는 따위의 권위보다도 눈앞에 제시된 사실을 존중하고 자기 아이디어의 결점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량안에 협력한다는 유연성을 기르며 신뢰나 동지애, 협동 등의 창조활동의 기초가 되는 정신을 기르는 효

과가 있다.

브레인 스토오밍의 실행 방법

브레인 스토오밍은 10명 안팎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중에서 한 사람의 리더가 나온다. 그리고 가능하면 2명 정도의 서기가 필요하다.

먼저 큰 백지를 모두가 보이는 곳에 붙인다(칠판에 쓰면, 나중에 지워야 하기 때문에 백지로한다). 서기는 그 위에 모두가 낸 안을 매직펜으로 적어 나간다. 멤버는 10명쯤이 탁자 둘레에 마주 앉는다. 그리고 느긋한 자세로 긴장을 풀게한다.

그런 다음 리더가 규칙이나 방법, 목적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소요시간 등을 설명한다. 몇 번이나 했을 때에는 테마와 시간만을 설명해도 된다. 발언은 반드시 손을 들어서 리더의 지시에 따라서 한다.

리더가 「자, 시작합시다」하고 개회선언을 한다. 손을 든 사람을 지명한다. 발언을 하면 서기가 그것을 앞의 종이

에 요령있게 적는다. 도중에 그것은 앞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등의 발언이 무심결에 나오는 법인데 그때에는 리더가 주의를 준다.

10분이나 15분이 지나 의견이 나오지 않게 되면 적혀 있는 의견을 모두가 읽고 이것을 결합하거나 분해하거나 새로운 착안점을 제시하거나 해서 자극을 주어 다시 달라진 안을 내게 한다. 시간이 되거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게 되면 부원 협력에 감사하고 종료인사를 한다.

그리고 조금 「시간을 두었다가 모두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 안들에 ○표나 △표 또는 ×표를 하여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는 것도 좋다. 혹은 전원 투표로 상위 5점 정도를 결정하고 그 최고위에는 최고상을 주어도 좋다.

다만 문제는 나온 아이디어를 토대로 하여 다시 정보를 수집해서 두번 세번 되풀이하여 점점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게을리하면 완성된 안이 되기 어렵다.

아이디어개발의 철칙인 「아이디어를 낼 때에는 비판하지 말고 자꾸 나오는 대로 내어라. 비판은 반드시 장소와 시간을 바꾸어서 하라」

이 기본은 머리 속에 새겨 두기 바란다.

그리고 오즈본법을 개량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당신도 이미 아이디어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브레인 스토밍

브레인 스토밍은 10명 정도의 참가자와 1명의 사회자와 서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언제라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개인 발명인이 많은 발명학교 같은데서는 이것을 혼자서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보았더니 그것이 꽤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브레인 스토밍」이라고 명명하여 열심히 장려하기 시작했다.

예를들면 「이 재떨이에 대해 용도를 열 가지 이상 써보라」는 식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은 ①타구 ② 난장이의 배 ③ 불전의 경쇠 ④ 프리스피 ⑤ UFO ⑥ 인형의 모자—등등이 쏟아져 나온다.

이와같이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적어도 꽤 많이 나오게 마련이다. 이럴 때 한발 더 나아가 재질을 바꾸어 보거나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해서 아이디어 개발의 기법에 따라서 되도록 많이 적어내어야 한다. 60가지쯤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상당히 머리가 유연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출원서류를 문제로 삼은 브레인 스토 밍

이것은 중소기업의 사람들에

게 입이 닳도록 권장한 것이다. 일본에서도 특히나 실용신안의 경우 청구 범위에 다항제라는 것을 허용하게 됐다. 다항제란 발명고안의 중심을 적고 그 범위에서 어떤 것을 대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등에서 여러가지 다른 실시상태도 많이 적어 두어 타인이 그 중심 이외의 일을 하려 했을 때, 그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 다항제의 부분을 브레인 스토밍으로 생각해 내려는 것이다. 이것을 많이 적으면 적을 수록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원서의 다항제 부분을 브레인 스토밍으로 하는 것은 문제 자체가 문서화되어 명확하므로 그것을 하는 사람도 대단히 하기 쉽다. 그리고 효과가 크다.

게다가 또 하나 좋은 것은 그 실시의 모든 것을 생각해 나가다 보면 마침내는 다른 몇몇 발명으로 발전해 나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점이다.

그러니 독자도 아이디어를 특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려 할 때에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브레인 스토밍으로 그 다항제 부분을 되도록 많이 생각해 내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마치 금광맥을 발견한 광산가가 그 주위를 상하 좌우로 찾아 돌아다니다가 다른 방향에서 본디의 광맥보다 훨씬 큰 광맥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다. <※>